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9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0,27-30)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10,27-30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내 말을 알아듣는가? 또한 나의 말을 따르는가? 아니 나를 본받으려 나를 따르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알아듣다’는 곧 마음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를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잘 읽고 있으며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려 애쓰는가? 그리고 그분을 목숨 바쳐 따르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야!”하고 사랑 그윽한 목소리로 부르시자, “라뿌니!”하고 응답한다.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었다. 그리고 일생을 바쳐 주님을 따랐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양들을 알아보신다.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당신에게 사랑을 베푼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알아보신다. ‘주님, 주님!’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늑대의 탈을 쓴 양, 또는 염소의 탈을 쓴 양들은 결코 하늘나라 양 우리에게 들어갈 수 없다.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한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겠다. 무늬만 그리스도이면 무엇하겠는가? 삶은 전혀 그분을 닮지 않는다면 그는 양이 아니라 염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영원한 생명의 목장에서 주님 사랑의 풀을 뜯을 수 있게 하신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매일매일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그분의 제자가 되자.

(수원교구 4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 새 성전 이전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봉헌 준비를 위한 교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 2013년 새 성전에서 있을 성탄 영세식에 많은 새 교우가 입교할 수 있도록 소공동체 안에서 적극 홍보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도록 나 자신부터 더욱 노력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여호수아기 5-12장

다음 성경구절 읽고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여호 5,10-12)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2. 예리코 점령 (여호 6,1-27)

이렛날이 되었다.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일곱 번 돈 것이다. 일곱 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 주님께서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너희는 완전 봉헌물에 () . 탐을 내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완전 봉헌물로 만들어 ()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제들이 ()을 부니 백성이 ()을 질렀다. 백성은 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

3. 아칸의 죄와 그 결과 (여호 7,1-26)

이스라엘이 ()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을 어기고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으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 기물 가운데에 두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완전 봉헌물이 있다. 그 완전 봉헌물을 너희 가운데에서 () , 너희가 원수들에게 ()’

4. 아이 점령 (여호 8,1-29)

모세가 팔을 뻗는다(탈출 17,11-13)	여호수아가 손을 내뻗다(여호 8,26-27)
모세가 손을 들면 ()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
))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접목시켜 생각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하느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나누기: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과 믿음을 실행하고 있는가?

● 우리는 매사에 하느님을 앞서서 일을 행하지는 않는가?

나누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하느님께 전적인 신뢰와 기도로 이를 청하기도 전에 인간적인 성급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은 없는가?

●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나누기: 고해성사를 통해 크고 작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정수 정현 현서 작곡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얼마오 제 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녀...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할 게 노 래 하 자 일 렬 무 야

중 - 기 하 고 봉 사 하 자 세 상 모 두 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 하 고 함께 나 가 자 천 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